

# 무주상보시 불자4명 수상



국무총리상 정련·일광스님 복지부장관상 일정스님·오선옥씨

태풍 루사피해로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라는 해보다 움츠러들었던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해온 불자들의 선행이 밝혀져 명절 믿을 혼흔하게 하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정련 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위원장)과 일광 스님(서울 일광사 주지), 일정 스님(보령 천수암 주지)과 오선옥 씨(40, 강릉 자비원 과장), 이들의 자비행은 지난 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정련 스님은 부산 물론대 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한 것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됐다. 또한 스님은 1997년 어린이 유아포교로 제9회 포교대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족간 동질성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일광 스님은 1961년부터 어려운 절 살림에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온

보시물은 사부대중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왔다. 또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나병환자나 정신병 환자는 물론 산간 오지의 독거노인까지 찾아가 도움을 손길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통을 받는 태백시 철암동을 직접 방문, 백미 1000kg, 의복 1000여점, 생필품 1000여점 등을 기탁하기도 했다.

일정 스님 또한 15년 전부터 천수암이라는 조그만 사찰에서 수행하던

서 장학사업과 독거노인 돌기, 무료급식을 실시해왔다. 스님은 공부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칫 배움의 기회를 잃을 뻔 한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도 50여명이 스님의 도움을 받을 정도.

또한 독거노인 70-80명에게 쌀 등 생활용품 지원하고 있으며, 대주수요일 대천역 광장에서 노숙자나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도 해 오고 있다.

오선옥 강릉 자비원과장은 20살

되던 해, 텔레비전에서 당시 홍제동 영아원 원장이었던 진철 스님의 활동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아동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아동복지시설인 영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91년부터 강릉 자비원(원장 최승준)에서 보육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초과장은 불심이 돈독해 항상 자비원에 마련된 법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김철우·남동우 기자

## "자신을 보배처럼 아끼라" 월운스님 한양대서 강연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이, 한양대가 개설한 '뉴밀레니엄 시대'의 인간학' 과목의 첫 번째 강사로 초청돼 강연했다.

12일 강좌에서 '21세기 청년들의 사랑과 역할' 주제로 강연한 월운스님은 200여명의 한양대 학생들과 함께 21세기 한국 불교는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전개했다. "부처님은 인간행복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친 분"이라고 운을 뗀 월운스님은 "21세기도 부처님의 깨달음대로 자업자득의 도리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남의 불행에 눈감고 나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보배처럼 아끼라"고 법문했다.

김유신 기자

## 인각사 인근 군위 화북댐 예정지 수은등 중금속 다량검출

군위 인각사 인근 3km 지점에 건설예정인 화북댐 예정지 상류가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9일 화북댐 예정지 상류 토양에서 '이따이따 이따이방'을 일으키는 카드뮴과 '미나마타 병'의 원인이었던 수은이 함께 다량으로 검출됐다며 주변 토양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자체분석결과 카드뮴이 3.4ppm, 구리가 49ppm 검출돼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하는 오염기준에 근접해있고 비소는 790ppm으로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북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구룡사 '9·11테러' 1주기 추모법회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10월 9·11테러 1주기를 맞아 주한미군 캠프부대 군장병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법회를 열고 테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 교구본사 환경위 구성 본격화

### 해인·봉선사 이어 통도·불국사도 결의 조계종 '위원회' 개칭...10월에 워크숍

최근 자연 및 수환경 수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인사와 봉선사가 교구 내에서 발생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뒤를 이어 8월 28일 법주사, 12일 통도사와 불국사가 교구 본발사 주지스님회의를 통해 환경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 관음사 역시 환경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가 환경문제 사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과 교구본사환경위원

회 구성을 결의한 데 이어,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9일 회의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 명' 개칭 및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해인사 환경위원회의 사례를 참조, 재가 전문가와 지역환경단체 임원, 지역 주민이 참가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에 보고하는 것을 각 교구본사에 하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스님과 전문가, 교계단체가 참여하는 불교환경워크숍을 10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강유신 기자



7일 개관식을 가진 내원시니어클럽에서 정련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년의 삶 더 풍요롭게" '내원 시니어클럽' 개관 50세이상자 경험·기술 사회환원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중노년층의 경제사회활동을 돕는 비영리 노인복지기관인 내원시니어클럽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험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은 크게 소독청, 교육보상형, 기타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작품 판매 및 판매사업, 주말농장 및 농업 현장 학습장 운영, 떡방앗간 운영, 택배 및 용역 사업, 노인전용 전화상담실 운영, 야생화 안 내 설명 사업, 야생화초 기구기, 중노년층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051)244-6700 부산=천미희 기자

## 묵탁소리 중무원부터 신도등록을

김재경 (취재1부 차장)

조계종에 등록된 신도수는 지난 달 말까지 모두 25만여명. 조계종의 신도등록사업은 사업 주체인 중앙 중무원들에게 마저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실패한 중핵인 것일까. 포교원 관계자는 대부분 신규 중무원들이 신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원 채용시 신도등록이 주요 사정 항목인 점을 생각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계종이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신도등록 사업은 해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도등록 폐지론'에 부딪히며 굴곡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재적사찰 갖기 운동, 신도등록 홍보강화, 신도등록 우수 사찰 포상, 미비한 사찰의 중정감사 강화, 인사사고 반영 등을 실현하겠다고 여전히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 중무원들과 사찰, 불교단체 등 재가 중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불교단체나 불교언론에 종사하는 불자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인연있는 사찰을 참배하면 됐지, 구지 재적사찰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생각에서다. 아마 신도등록 캠페인을 애써 외면하는 대부분의 신도들 역시 이러한 '신도관'에 젖어있을 것이다. 여기에 신도등록 사업의 함정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를 주시는 분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부산 구룡사근처 공원에 청소차 세차장 백지화

부산 구룡사 인근에 들어서기로 했던 청소차 주차장과 세차장 건립이 백지화되면서 사찰 수행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게 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사찰이 위치한 근린공원에 들어서기로 했던 청소차 주차장과 세차장은 땅 소유주인 (주) 청미산업이 건립취소를 밝힘으로써 최근 일단락됐다.

구룡사 선원장 도오스님은 "대체 부지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해 차고지 건립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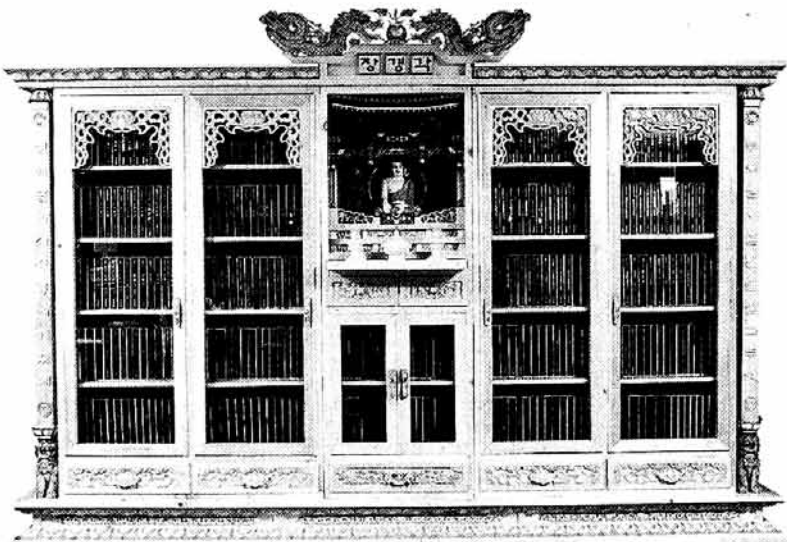
대가야 사이버박물관 개관

5세기경 경북 고령지방 대가야인들의 고대문화와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이버 박물관(www.daegaya.net)이 개관했다. 고령군이 최근 개설한 이 박물관은 인도를 통해 직접 불교를 받아들인 '불교 남방전래설'을 입체화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 (주문 제작 보급)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담집과 불단으로 장식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사람과 이동식 공양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원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원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원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점(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